

불교계도 창업 자금 지원해 준다

조계종복지재단 11월 30일까지 6억여원 저소득층에 지원

사례1 저소득계층인 김모(46)씨는 자금이 부족해 창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원에 자금을 빌리기도 곤란한 상황이었어서 전전긍긍하던 상태였다. 그러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해 3000만원을 지원받아 '푸른수산'이라는 도소매업을 창업했다.

사례2 인터넷으로 한자강의를 하는 이모(52)씨는 3급 장애인이다. 자신만의 한자 학습법을 개발하고 한자교재를 만들어 특허를 취득한 그는 책을 출판하고 싶었지만 자금이 부족해 고민 중이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출판에 드는 인건비 등 제반비용 1500만원을 창업자금으로 지원했다.

사례3 최근 설립한 천모(29)씨는 아버지에게서 원단 도소매업을 배우고 있었다. 이 경험을 살려 창업을 하고 싶어 한 박씨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찾았고, 창업자금 3000만원을 지원받아 개인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사례4 여성가장인 노모(58)씨는 의류수선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을 확장해 매출을 늘리고 싶었던 정씨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경영개선자금 2000만원을 지원받아 체인제타업을 운영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유일하게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창업자금지원을

해주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저소득 창업자 창업자금지원 사업'이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지난 4월부터 서울시가 열

20세 이상 소외계층에 지원

1천5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3% 금리로 균등분할상환

대출상황 의지 보일수록 유리

매년봄재단, 서울광역자활센터 등 6개 기관에 시행 한 '2012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불교계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9억 여 원을 지원받아 저소득층 예비 창업자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무담보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자립 및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는 복지재단을 방문해 실무자와 상담을 받은 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심사에서 선정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또는 창업희망자가 서울시 소재이며 만 20세 이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저소득층(최저 생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들에게 창업교육 및 경영지원 등 사후관리도 실시해 창업이 잘 뿌리내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불교용품 무역업을 시작한 권준오(47·사진 가운데)씨가 복지재단에서 파견한 컨설턴트와 상의 하는 모습.

비의 170% 이내), 실직자·장애인·여성가장·한부모가정·2자녀이상(막내가 만 13세 이하)가정·다문화가정·새터민·서울희망플러스 통장 저축안료자 등이다. 단,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및 사치·향락·유혹업종 등은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창업자금은 1500만원 중 기본 지원하고, 자금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영개선자금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은 2000만원 이내, 7등급 이하는 15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저소득 창업자 창업자금지원 사업'은 자금지원 대상자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무담보 3%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

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10여 명. 저소득계층, 장애인, 여성가장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다양하다. 이들은 최소 15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아 소규모 카페와 마시자샵 등 다양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재단은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들에게 창업교육 및 경영지원 등 사후관리도 실시해 창업이 잘 뿌리내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재단을 통해 창업한 사업자에게는 수시로 경영관리, 마케팅, 재무·회계, 세금, 노무,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창업준

비자에게는 동종업계 현장체험기회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자금지원을 받은 창업자들은 자활을 통해 새 삶을 살고 있다는 평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부 문정지는 팀장 "수산업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간절한 시기에 자금이 필요했는데 마침 복지재단 지원사업을 보고 대출을 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감사인사를 해오셨다"며 "금융권에 대한 정보력이 없는 새터민들도 대출부터 경영컨설팅까지 소소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 유용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자에게 해당된다고 모두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자활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정지는 팀장은 "창업희망자 지원 서류심사를 할 때 면접도 보고있다"며 "창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의지 등을 참고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진실성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조언했다.

'저소득 창업자 창업자금지원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신청자를 받으며 사업문의 및 상담접수는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전법회관 6층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실을 내방하거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02)723-5101

이너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우리복지관 주력사업 강원 속초시노인복지관 '위풍당당할매'

미술심리치료로 사별 아픔 달래



참여자들은 미술심리치료를 통해 우울감을 감소시킨다.

죽음으로 인한 가족의 사별은 일생동안 겪게 되는 상실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별 가족의 13%가 4년 후에도 우울증을 보였으며, 사별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고 신체·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4-7년이 지나야 한다고 한다.

큰 사건이지만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가족의 사별에 대한 슬픔과 상실 위기를 빠르고 건강하게 극복해 삶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도록 유도해주는 사별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때다.

특히 노인들에 대한 사별 후 관리리는 매우 중요하며 사별의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중재해야 한다.

속초시노인복지관(관장 묘근)은 2월부터 속초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사별한 지 5년 미만의 어르신 10여 명을 모시고 정서적 안정감을 키우기 위한 외로움·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위풍당당할매들'을 실시하고 있다.

참가 어르신들은 매주 모여 참여자 집단상담,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을 통해 우울증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어르신들은 매월 1회씩 전문상담가를 모시고 참여자 집단상담 및 미술심리치료를 실시해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부여받아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또한 레크리에이션, 다도교육, 건강관리교육 등 새로운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키우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방법 교육, 홀로 문화활동하기 체험, 주택연금 및 경매금융

교육 등을 진행해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자립심을 키울 수 있게 하고 있다. 묘근 스님은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배우자 사별로 인한 노인 1인가구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강원도 7개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을 확인해보면 속초시가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묘근 스님은 "사별로 인한 우울증은 동거 자녀가 없는 경우에 훨씬 우울증상이 높다는 보고를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

집단상담, 봉사활동 효과적

금융교육으로 자립심 길러

통해 비율이 높은 속초시 독거어르신에게 사별관리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속초시노인복지관 라운미 사회복지사는 "올해 초 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만 해도 어르신들의 표정이 어둡고 소극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으나, 미술심리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많이 밝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라 복지사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참여자들끼리 지속적인 모임형성을 도모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속초시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과 지속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보다 질 좋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33)636-3373 이너는 기자

동국대 이사진 장기기증 동참

이사장 정련 스님 등 10여 명 서약



정련스님, 김희옥 총장 등 10여 명이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가 아름다운 생명나눔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이사회는 이사와 감사 등 임원진을 포함해 8월 29일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장기기증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사장 정련 스님은 "불교 인재를 양성하는 동국대 이사진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함으로써 성숙한 생명나눔 문화를 열어가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기기증에 동참한 동국대 이사는 정련 스님을 비롯해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삼보 스님(가원정사 회주), 명신 스님(보현사 주지), 심경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서실

장), 진화 스님(봉은사 주지), 종민 스님(동국대 법인사무처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 허천택 동국대 명예교수, 구자명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등 10명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불

사에 동참해 주신 동국대 이사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원로의원 스님을 비롯해 종단 중진 스님들이 직접 나서 모범을 보인 만큼 앞으로 장기기증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4-8050 이너는 기자

복지단신

조계종복지재단, 자원봉사단 전체 연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9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조계종직할자원봉사단 전체 연수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정목 스님(유나방송 운영자)이 '고통에서 성장의 기회를 보자'를 주제로 특별법문을 펼치며, 신규자원봉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단원증과 단복을 수여하는 환영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진노인복지관, 만남 프로젝트 실시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이성교제 프로젝트인 '최고의 사

랑'을 9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실에서 진행한다. 행사는 서울시 거주 만60세 이상 75세 이하 독거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관계형성프로그램, 남이섬 여행, 재능기부역량강화프로그램(포크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02)466-6242

양양군노인복지관, 평생교육 실시

양양군노인복지관(대표 법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개설강좌는 교양교육(한글교실, 영어·일본어·중국어회화), 정보화교육(정보화기초1·2, 인터넷활용), 취미여가교육(라인댄스,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건강교육(팔극권, 요가) 등으로 12월 초까지 2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033)673-2685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연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으면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우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고성능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빠-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